

Borealis, 한국 컴파운드 전문회사인 디와이엠 솔루션(DYM Solution Co. Ltd)의 지배지분 인수 계약 체결

폴리올레핀, 베이스 화학물질 및 비료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Borealis는 한국 컴파운드 전문회사인 디와이엠 솔루션(DYM Solution Co. Ltd.)의 지배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해당 계약 및 거래에는 모든 제반 규제 승인이 적용됩니다.

1992년 설립된 디와이엠 솔루션(DYM Solution Co. Ltd.)은 세계적인 전선 및 케이블 산업용 컴파운드 솔루션 공급업체로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반도전 HFFR(할로겐 프리 난연), 고무 및 실란 경화(Silane-cured) 컴파운드 전문회사입니다.

이번 투자를 통해 Borealis는 Borouge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선 및 케이블 자산 범위를 확장하여 “전세계에 에너지 공급”이라는 Borealis의 사명을 구현할 계획입니다. Borealis는 반도전, 난연, 고무 및 실란 경화 컴파운드를 위한 보완 제품 및 기술을 통해 광범위하고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전망입니다.

Borealis의 최고 경영자인 Alfred Stern은 “세계적인 수준의 컴파운드 생산을 위한 아시아 제조기지를 확보하면서 Borealis와 Borouge가 지속적으로 유기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계약을 통해 Borealis는 전선 및 케이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뛰어넘는 수준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” 라고 말했습니다.

감사합니다

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

Patrick Laureys
대외 커뮤니케이션 수석 관리자(Senior External Communications Manager)

전화: +43 1 22 400 726 (오스트리아 비엔나)

E-mail: patrick.laureys@borealisgroup.com

Borealis는 폴리올레핀, 베이스 화학물질 및 비료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. 본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으며 직원 6,600여 명을 보유하고 12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Borealis의 2016년 매출 수입은 72억 유로, 순이익은 11억 700만 유로였습니다. Borealis 자본 중 64%는 자회사를 통해 Mubadala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6%는 오스트리아의 통합된 국제 석유 및 가스회사인 OMV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. Borealis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(ADNOC)와의 합작 투자회사인 Borouge와 협력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합니다. www.borealisgroup.com
